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8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 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四. 嗚呼悲哉 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은고!

그 후 영모님은 최 사모님이 당신에게 독약을 먹여 독살하려 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밖으로 내보냈다. 전도관 사람들은 그래서 최 사모님을 나쁜 여인으로 매도하고 상종을 안하는 것이다. 최 사모님의 딸 소진이라도 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인연을 끊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영모님은 구세주님의 가시는 길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길을 평탄케 하려 무한히 노력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영모님께서 구세주의 가시는 길에 대로를 닦아 놓고 평탄케 하게 하시기 위하여 취한 내용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다.

첫째: '예수가 가짜 구세주다' 라고 만천하에 밝히신 것이다. 그토록 일생 동안 예수를 구세주라고 열심히 증거하신 영모님이 예수는 가짜 구세주요, 대 마귀새끼라고 밝히신 것이다. 당신의 사명이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것인데 가짜 구세주인 예수를 만천하에 밝혀놓지를 못하면 당신이 천신만고 끝에 출현시킨 구세주는 40억이나 믿는 기독교 세력에 의해 그냥 묻혀버려 빛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약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모님은 전도관 교인들만이라도 예수

는 구세주가 아님이 인식되게 하여 구세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의 길을 어느 정도라도 열어놓으신 것이다.

둘째: 성경상의 동방은 한국이고 한국에서 동방의 의인이 출현하는데 이 동방인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다. 이 단지파가 단군 민족이라고 밝혀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한국 민족에서 동방의 의인이 나타나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시면서 감람나무와 동방의인인 승리자는 다 하나님이라는 깜짝 놀랄 말씀을 던져 구세주께서 역사하실 때 도움이 되게 하셨다. 결국 한국 민족에서 세계를 구원할 구원의 주(主)가 출현함을 알리신 것이

셋째: 영생론을 증거하셨다. 당시는 다 죽어 천당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모님은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장하면서 증거한 것이다. 물론 이 영모님의 영생론은 당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가 나타나면 인류가 죽지 않는 영생의 시대가 열림을 알린 것이다.

넷째: 피는 곧 생명이니(창9:4)라고 하시면서 핏속에 죄가 있다고 증거하셨다. 생명이니 피는 영이기 때문에 물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만 맑히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강력히 증거하셨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핏속에 죄가 있다고 하여 물질과 신이 하나임을 발표하실 구세주 역사의 서장을 열



1979년에 예수가 가짜구세주 대마귀라고 치는 영모님의 설교 장면

어놓으셨다. 다섯째: 승리제단의 명칭을 만들어 승리하신 하나님인 구세주께서 출현하실 것을 예비하셨다.

2) K관장의 증언

이상 몇가지를 들어서 구세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하여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영모님께서 어떻게 구세주를 위하여 예비하셨나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영모님은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 또 다른 각도에서 구세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계획을 구상하셨던 것 같다. 앞에서 영모님께서 고려대급업을 하셨다고 했다. 또 영모님께서 600억이라는 엄청난 부도를 내고 그 부도액을 상환하는데 30%로 대부분을 해결을 보았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영모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셨는데 영모님은 그 많은 돈이 어디에 필요로 하여 그렇게 긁어 모으셨을까? 영모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였을까? 아니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영모님은 세분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에게 전권을 주시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근접도 못하게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와 같은 체제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셋째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까지 생겼다. 만일 영모님이 그토록 긁어모으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셨다면 세 아들들에게 회사를 분배해서 나누어주어 맡겼을 것이다. 그리고 영모님의 개인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남겨 놓았을 것이다. 영모님이 하실려고 하셨으면 충분히 그와 같이 하실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모님의 개인 명의의 재산은 한푼도 남겨놓지를 않으셨다. 때문에 가족들이 영모님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

할 근거가 없어 송사를 하여 재산권을 주장할 어떤 근거도 남겨놓지를 않으셨다. 영모님은 이와 같이 완벽하게 하여 가족들이 신앙촌의 공공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체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영모님이 그토록 재산을 긁어모으신 이유는 전도관과 신앙촌이 날로날로 발전하게 하시려고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 생각을 한 바 있다. 전도관은 다 팔아치우고 또 전도관을 교회로 바꾸고 또 신앙촌과 전도사들을 다 강제로 해산시켜 내쫓았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은 이 조직을 잘 발전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영모님은 왜 그토록 고려대급업까지 하시면서 돈을 긁어모으신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점을 다음과 같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한다. 너무 비약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 독자들도 함께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K도 관장의 증언을 통해 추리를 해보기로 하겠다.

이제와서 이런 증언을 통해 "영모님의 행적의 진실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추리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라고 하면서도 K관장은 이제는 진실을 밝혀볼 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K관장은 만에 하나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추리가 된다면 자신은 얼굴을 들고 주님앞에 나올 수가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

라고 하면서 극구 증언을 거절했으나 결국 이 증언이 이 역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K관장의 증언요약: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모님의 긴급 호출을 받은 K관장은 영모님에게서 결혼을 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된다. K관장은 독신으로 신앙만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말씀드렸으나 영모님은 엄숙한 말씀으로 "아니야, 결혼을 해야 돼!" 하시면서 가장신앙촌의 모여인과 중매를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큰 뜻을 위하여 내가 K관장에게 큰 일을 맡길려고 한다."라고 하신다. K관장은 영모님의 너무나도 엄격한 말씀에 그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 이후 몇 개월 후인 11월에 가장신앙촌으로 발령이 되어 가장신앙촌에 들어갔다.

1978년경 영모님은 승리제단의 명칭을 처음 발표하시고, 또 1979년에는 예수가 가짜구세주 대마귀라고 치셨다. 그리고 회사명칭을 '시온'에서 '삼광(三光)'으로 바꾸셨다. 이와같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변혁을 일으키는 와중에 영모님이 불려서 올라갔더니 느닷없이 경리장부를 하나 주시면서 "이제부터 매일 내가 주는 메모지를 받아다가 이 장부에 정리해 가지고 와!"라고 하신다. "네"라고 대답을 하고 경리장부를 받아가지고 나오긴 하였으나 사실 K관장은 경리장부를 정리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84회

말세의 피란처는 십승이니 목운이 일남일녀를 생산하고
 마지막 금운이 지상선국을 건설하느니라(삼인동행)

歌辭總論(가사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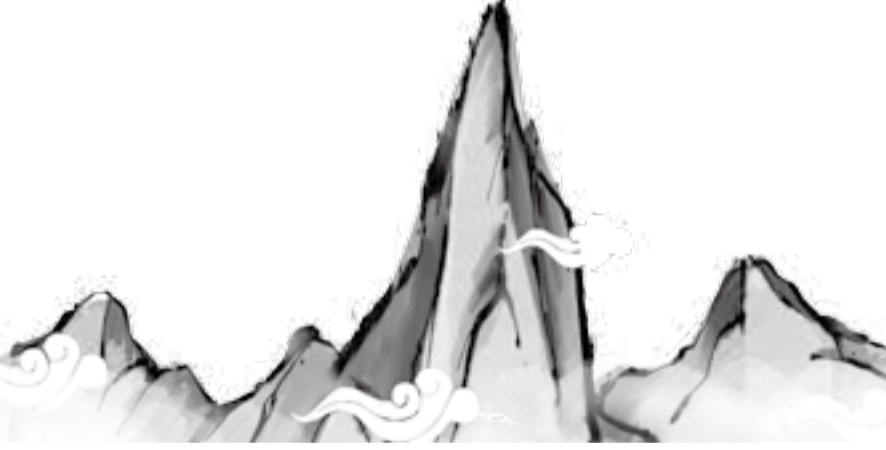
東方甲乙三八木 동방갑을삼팔목
 靑帝將軍 靑龍之神 청제장군 청룡지신
 南方丙丁二七火 남방병정이칠화
 赤帝將軍 朱雀之神 적제장군 주작지신
 西方庚辛四九金 서방경신사구금
 白帝將軍 白虎之神 백제장군 백호지신
 北方壬癸一六水 북방임계일육수
 黑帝將軍 玄武之神 흑제장군 현무지신
 中央戊己五十土 중앙무기오십토
 黃帝將軍 句陳騰蛇 황제장군 구진등사

방위로서 동방은 천간으로는 갑을(甲乙)이요 역수(易水)로는 삼팔(三八)이요 오행으로는 목(木)이요 신장(神將)으로는 청제장군(靑帝將軍)이요 방위신(方位神)으로는 청룡(靑龍)이다. 남방은 천간으로는 병정(丙丁), 역수로는 이칠(二七)이요 오행으로 화(火)요 신장으로는 적제장군(赤帝將軍)이요 방위신으로는 주작(朱雀)이다. 서방은 천간으로는 경신(庚辛)이요 역수로는 사구(四九), 오행으로는 금(金)이요 신장으로는 백제장군(白帝將軍)이요 방위신으로는 백호(白虎)이다. 북방은 천간으로는 임계(任癸)요 역수로는 일육(一六)이요 오행으로는 수(水)요 신장으로는 흑제장군(黑帝將軍)이요 방위신으로는 현무(玄武)이다. 중앙은 천간으로는 무

기(戊己)요 역수로는 오십(五十)이며 오행으로는 토(土)이다. 신장으로는 황제장군(黃帝將軍)이며 방위신은 구진등사(句陳騰蛇)이다.

鼠牛子丑 서우자축 兔虎寅卯 토호인묘
 龍蛇辰巳 용사진사 馬羊午未 미양오미
 猴雞申酉 후계신유 狗豬戌亥 구자술해
 天干地支變數中 천간지치변수중
 年月日時四象 연월일시사상
 推算之中破字法 추산지중파자법을
 三秘論 삼비론의 理氣化이기화로
 如合符節 여합부절되오리라

지지(地支)를 설명하면 서우(鼠牛=쥐소)는 자축(子丑), 호토(兔虎=범토끼)는 인묘(寅卯), 용사(龍蛇=용맹)는 진사(辰巳), 미양(馬羊=말양)은 오미(午未), 후계(猴雞=원숭이닭)는 신유(申酉), 구자(狗豬=개돼지)는 술해(戌亥)이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서로 얽어지며 그 운수와 역수가 변화하는 가운데 연월일시(年月日時) 사상(四象)을 그려놓았고 파자법을 이용하였으니 미루어 짐작하여 셈해보라. 송가전(松家田)의 세 운수의 비밀과 목숨을 보존하는 법을 이기(理氣)의 조화로 논한 삼비론(三秘論)을 깨친다면 그 시기가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음을 알 수 있으리라.



黑龍壬辰初運 흑룡임진초운으로
 松松之生 송송지생기머졌으며
 赤鼠丙子中運 적서병자중운으로
 家家之生 기가지생기머졌고
 玄兔癸卯末運 현토계묘말운으로
 弓弓之生傳 궁궁지생전했다네
 松松家家以後 송송기이후에는
 弓弓乙乙田田 궁궁을을전전으로
 河田洛田天地兩白 하천낙천천지양백
 弓圖乙書兩白人 궁도를서양백인을
 三祕中出十勝之理 삼비중출십승지리
 易理八卦推算 역리팔괘추산하면
 雙弓四乙隱秘中 쌍궁사을은비중
 避亂處發見 피란처발견하야
 天坡弓道下處 천파궁도하처가
 十勝福地 십승복지아니든가
 此外十勝 차외십승찾지말고
 雙弓之間 쌍궁사간지질세라

九宮八卦十勝之理 구궁팔괘십승지리
 河洛靈人生子女 하락영인생자녀을
 前無後無末運妙法 천무후무말운묘법
 地天泰卦仙八卦 지천태괘선팔괘라

초운(初運)인 임진(壬辰=黑龍흑룡)에란에는 소나무(松)가 나를 살리며(鳴)나라 원군 사령관인 이여송李如松 장군을 말한다. 또한 소나무 숲으로 피한 사람은 살았다고 하였다) 중운(中運)인 병자(丙子=赤鼠적서)호란에는 집(家)이 나를 살리며(족설이 내리는 겨울에 일어난 전란에는 산으로 피란 간 사람은 눈과 추위에 얼어 죽고 은돌방이 있는 집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을 말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머지않아 있을 말운(末運)에 일어날 계묘(癸卯=玄兔현토)의 일에는 궁궁(弓弓) 즉 궁을 십승 정도령

을 만나 갈모해인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전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송송(松松=임진왜란)가가(家家=병자호란)이후에 현토계묘말운(玄兔癸卯末運)에 목숨을 보전하려면 궁궁을을전전(弓弓乙乙田田=궁을을을전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궁궁을을전전은 하도의 전, 낙서의 전에서 나오는 궁을이요 하도(宮도=태백), 낙서(을서=소백)의 양백(兩白)에서 나온 궁을 양백 십승인을 말한다. 삼비(三秘=송가전)의 세 번의 운수(運數)중 마지막 환란의 피란처가 십승이라는 것은 역의 이치와 팔괘를 추산해보면 쌍궁과 사을(四

乙) 가운데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피란처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 피란처가 하늘 고개(天坡)인 궁궁이요 도하처(道下處)요 십승의 복된 땅이 아니던가? 말세의 피란처는 십승 밖에서 찾지 말고 쌍궁 즉 궁 사이에서 찾아보아라. 구궁팔괘(九宮八卦)중의 십승(十勝=하나님)이 하도낙서의 이치에 따라 신령한 하늘의 사람(5도 72궁 정도령)으로 나와서 하늘의 자녀를 생산(十人生產=一男一女)하는 일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말운(末運=중천운)의 묘법(妙法)이요 아들격인 6도 81궁 정도령이 천지개벽을 완성하여(천지비타地否에서 지천태地天泰로 바뀜) 불사영생의 지상 신선 세계를 이루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